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문 (오규원): 43P
[2] 쥐 (김기택): 44P
[3] 길 (운동주): 151P
[4] 사는 일 (나태주): 151P
[5]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신경림): 166P
[6] 사랑의 측량 (한용운): 166P
[7]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193P
[8] 면민함에 대하여 (고재중): 193P
[9] 인동차 (정지용): 230P
[10] 봄 (이성부): 230P
[11] 무화과 (김지하): 247P
[12] 귀족도 (서정주): 247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강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곳
 몽둥이와 텃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주린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 있는 밥알들
 거품을 물고 떨어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아아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

- 김기택, 「쥐」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신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견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걸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견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익은 멥쌀떡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 나태주, 「사는 일」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사꽃 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내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르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 신경림,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
니다.

뉘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 한용운, 「사랑의 측량」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도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구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찍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 나겠니

- 고재중, 「면민함에 대하여」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 무시로: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 * 잠착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달력.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줌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 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 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일어나 들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팽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 김지하, 「무화과」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

신이나 삼아 줄걸 슬픈 사연의
 울울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 -